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시간에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임락경 목사님(화천 시골교회)이 강의하십니다.

오후 집회 후 세미나실에서 수양회준비회의가 있습니다. 각 선교회별 수양회 준비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이번 주 수요집회는 5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설립 1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후에 기념음악회가 열립니다.

교회 생일을 맞아 대청소를 합니다. 5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손걸레를 한 개씩 가지고 오세요)

절전을 생활화 합시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전등은 꼭 소등합시다.

식 당 봉 사 : 정경례 강순배 신영신 김미현 김진선 김명순 김재환
 5/6 식 당 봉 사 : 김윤정 조병주 김현영 최은미 박시내 이봉배 윤성중
 오늘설거지봉사 : 이준하 이지훈 국지연 서안나
 다음 주 설거지 : 박시내 이영아 정재정 김세진
 새 교 우 : 추현영(3남) 황인승(청)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도 맑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처럼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며 청정한 삶을 꿈꾸게 하신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더럽고 추한 기운들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헛된 욕망, 끝없이 반복되는 증오, 게으름 등을 다 버리고 맑고 밝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폭력의 손길 아래 몸이 찢기고 모욕을 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의의 팔로 불의한 자들의 폭력을 막아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안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상준 최경미 김경연 김기석 김희우 김승현 김수진 김영순 김윤수
 박상호 김종락 박영신 김중수 이순정 김지윤 김지호 김전혜 김혜권
 박재임 노준우 박상규 박윤숙 박준희 이기분 변재민 이소혜 서수진
 송동준 김진경 양재성 임미심 오자영 윤정덕 구성실 이경남 이근식
 신영신 이용규 노지현 이준림 이진영 한양미 임영철 정경례 장원호
 박성희 조병익 조정연 최재욱 이수정 최종원 한인철 조윤숙 허명선
 황경순 황영준 황원순 황자순 무명

감사헌금:

강순배 김대규 박경애 김준호 곽해자 노준우 박고은 박숙영 안종일
 정현주 이해동 맹은선 조희윤 한창희 무명7

생일감사헌금:

구성실 장영숙 조윤기

녹색꿈헌금:

이범준 이진영 한양미

장혜숙	백혜숙	조순덕	백혜숙
노순옥	박성희	박성희	박미영
최희영	최경미	임정자	차혜심
장영숙	신영신	김명순	김진경
정경례	진정숙	조병주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조영순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홍복선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강순배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구성실
안홍숙	오현정	김명희	오현정
정영선	서정순	김희우	정영선
박혜경	조향미	조향미	정영상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초록가게 광고

주인을 찾습니다

봄날을 맞아

초록가게가 새롭게 꽃단장을 했습니다.

별써 많은 분들이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초록가게 수납장이 좋은 물건들로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물건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 좋은 인연이 될 물건들 찾으시고

또 다른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될 나의 물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셔서

구경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 초록가게의 수익은 전액 외부단체 후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오지은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제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불안을 버리고 오늘을 붙잡고 사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십시오.

아멘. 그 날이 더디게 오는 이유를 세상에 돌릴 뿐 자신의 적은 믿음을 아파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일 함께 하자'며 손잡아 주시던 그날의 감격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임락경 목사	5월 기도의 밤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완식 장로	이진영 선생 박석희 집사

4월	영접위원	방문성 하현철 이성범 안정숙 정경례 박경원
	헌금위원	조병무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농사꾼 목사, 아니 목사 농사꾼

- 화천 시골교회 임락경 목사 인터뷰 (프리칭 아카데미) -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평생 농사꾼이 되기로 작정했던 한 소년은 16살에 '맹발의 성자'로 알려진 이현필 선생이 세운 최초의 수도공동체 동광원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15년간 그는 결핵환자들을 돌보며 살았다. 군대를 제대하고서야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다녔고 30여 년 전 강원도 화천으로 와 시골집이라 불리는 시골교회를 세웠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소년은 동광원 시절의 스승들인 유영모, 이현필 선생님의 가르침을 삶을 통해 몸소 실천하며 긴 세월을 살아왔다. 한옥으로 지어진 시골집에서 스무 명 정도의 장애우들과 함께 생활하며 삶을 꾸려가는 임락경 목사. 자신에게 있어 목회는 삶이라고 말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농사꾼입니다. 이곳에서 콩을 재배해 된장, 메주 등을 만들어서 온 식구들이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정부의 도움은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평신도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생각에 나는 어떤 직위나 벼슬에 평생 연연하지 말고 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반장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집사도 하지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될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지요. 광주에서 폐결핵 환자들과 함께 살다가 군대에 갔고 군대를 제대하고 이후 72년부터는 또 결핵환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오게 된 것은 이곳이 땅값이 싸서 이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와서 조용히 살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은 이곳에서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불이 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러 와보니 15명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기관에서는 이상한 단체로 의심을 받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에게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친절하 사람이라고 소문

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허가가 없는 장애인 시설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그 과정이나 수속이 너무 번거롭고 정부의 제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 시설을 하면 정부의 제재에서도 자유롭고 불법복지시설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게 되니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지요. 물론 이제는 국가에서 장애인 신고 시설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교도 몇 개 없었을 뿐 아니라 화천군 전체를 통틀어 목사님이 단 두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목회를 시작했던 것이고요. 이 마을에는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에 많은 장애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상처받기 일쑤였지요.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기 위해 교회를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결혼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자식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따로 모여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교회를 세웠지요. 하지만 한 마을에 교회가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내걸지 않고 십자가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 여러 식물이나 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 살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30여 명의 가족들과 20년 이상을 살았지만 교통사고 외에 병원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아무도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연과 호흡하며 살면 대부분 사람의 몸은 회복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 즐겁게 사는 것이 치료법이고 예방책입니다. 모든 신경질환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좋은 일만 생기고 이로운 일만 생긴다면 언제나 즐겁습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살면 모든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심한 병은 즐거움만 가지고는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고쳐집니다.